2006년 2월석사학위논문

칼 맑스의 실천철학 고찰

초기저작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전 경 일



칼 맑스의 실천철학 고찰

초기저작을 중심으로

A study on K. Marx's Philosophy of Praxis

2006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전 경 일

칼 맑스의 실천철학 고찰

지도교수 설 헌 영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전 경 일

전경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임재진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재 영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설 헌 영



2005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영문	초록〉・	•••••	••••••	•••••	•		·····ii
1. 머	리말 ·	•••••	••••••	••••••	••••••	•••••	1
		실천					
		존재로서의 관계의 *					
		균세의 ·					
		실천 ······					
		질로서의					
		노동					
3) .	소외의	극복	• • • • • • • • • • • • • • • • • • • •	••••••	•••••	•	31
		실천					
		유물론					
2)	이론과	실천의	통일	••••••	•••••	•••••	40
5. 맺	는말 ·	••••••		•••••	••••••		45
참고문	·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ABSTRACT

A study on K. Marx's Philosophy of Praxis

- Centering on Early Writings -

Jun, Kyoung-il

Advisor: Prof. Sul, Hun-Young, Ph.D.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Of the thinkers in the 19th century, no one had as strong impact on mankind as Karl Marx did. His influence was not confined to Europe, his arena, but reached to m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still taking hold beyond his times. When we look back on the history of mankind, the 20th century had been saturated with significant events related to him. In this country too, his philosophy offered theoretical support to our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during the past colonial rule by Japanese imperialists and is now working a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activists who desire social progress. The reason of his philosophy's wielding such influence may lie in the fact that Marx found the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and presented alternatives to it.

Since the end of long-lasted prosperity of capitalism in 1950s through 1970s, global capitalism has undergone a huge transition. The longstanding depression following the boom after World War II and the collapse of actual socialism in the 1980s became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tting that allowed the policy ideology of Neo-liberalism to quickly get momentum and proliferate to all over the world. The

Neo-liberalism can be summed as a policy that expands and deepens capitalism.

Under increasing acceleration of world capitalism in the name of Neo-liberalism, we have to focus on the philosophy that has offered an analysis of the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and solution to them. Marx was the philosopher who clarified that the hostile contradictions between the capital and the labour in a capitalistic society will invariably lead to inevitable sublation. Marx's analysis comes in a way of praxis perception of reality. His analysis of capitalism shown in his later works is represented quite specifically in his early works. Since he had already analyzed capitalism on a basis critical of the specific actuality in his early works, this study intends to look into his early works.

The characteristics of Marx's philosophy in his early works are: first, the starting point of his thinking was specific actuality. Second, Marx established his own philosophy by the critical method. Finally, he aimed at the unity of theory and praxis, and leaned toward the praxis. The article begins with such premise of the characteristics of Marxian philosophy. The plot of the article is as follow:

In chapter two, the study deals with a man of praxis that Marx noted. Marx viewed a man as 'a species-being', 'an ensemble of social relations' and 'a praxis subject'.

In chapter three, the study takes a review with its focus on his thoughts which linked the awareness of the meaning of labour as the essence of human nature as well as the alienation of the labour to praxis. Labour as human nature is said to have been portrayed in an estranged form in a society of private property, especially in a capitalistic society. By overcoming the alienation, a man can recover labour as the essence of human life and further progress to his liberation, said Marx.

In chapter four, the study examines a characteristic of Marxian

philosophy, the unity of theory and praxis. A theory is understood as a praxis-linked one of revolution, while being a philosophy of praxis. Marx began his philosophy at history which is the actuality of specific human activities. Marx ardently sought no other philosophy than the one that was not separated from the actuality of specific human living, that is, one that justly grasps, interprets and at the same time can reform the actuality.

Finally, in chapter five, the study tries to find the meaning that Marxian philosophy offers in the present era, and to observe the entailment that Marxian philosophy of praxis suggests to us over the issues that we face in these days.

keyword: philosophy of praxis, species-being, ensemble of social relations, labour, private property, alienation, theory, praxis, communism

1. 머리말

역사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사상이 탄생하기도 했고 사라지기도 하였다. 어떤 사상은 그 시대를 풍미하며 시대를 대변하는 사상으로 자리매김 되기도 했고, 어떤 사상은 곧 잊혀지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사상은 탄생과 더불어서 잊혀 있다가 후에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인간에게 믿음의 대상이었던 진리들은 새로운 사상이 생겨남으로 해서 한순간 거짓임이 판명나기도 하고, 새로운 사상에 의한 진리의 발견으로 인류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19세기 사상가 중 맑스만큼 인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영향력은 그의 활동무대였던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에도 미쳤으며, 19세기를 지나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세계사를 보건대 20세기는 그와 관계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채워져 있다. 그중에서 특히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과 1991년 소련의 해체를 들 수 있다. 위의 사건들은 모두가 맑스철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의 영향이 세계사에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철학은 과거 일제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에 이론적 뒷받침1)을 했었으며, 현재는 사회전보를 염원하는 활동가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맑스철학은 사회철학으로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쳐왔다.2) 이러한 영향의 이유는 맑스가 당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모순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데 있을 것이다.

1950년부터 1970년대 초에 걸친 자본주의의 장기 호황이 종료된 이후 세계자본 주의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호황기 다음에 왔던 장기 불

¹⁾ 김재현, 『한국사회철학의 수용과 전개』 (서울: 동녘 2002), p.12.

²⁾ ibid., pp.168-188. 참조.

황과 1980년대 말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신자유주의 정책이념은 급속하게 힘을 획득하면서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로 확산되는 정치, 경제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요약하는 말이 세계화이며 세계화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다.3)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첫째, 자본주의 경제의 완전성을 믿으며 시장에 가해지는 사회적 제약을 제거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둘째, 사유재산권을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본다. 셋째, 성장과 효율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다른 모든 사회적 가치보다 최우선한다.4) 이러한 특징들에 의거해볼 때,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더욱 확대 시키고,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할수 있다.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은 자본주의의 문제들이 자유로운 시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들을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가 영향력을 얻은 이래 전 세계에 걸쳐 빈부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일반 대중의 삶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1980년대 초 남미의 외채위기와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경제위기 등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제위기들은 신자유주의 확산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신자유주의 이름으로 세계자본주의가 더욱더 가속화 되는 시점에 서있는 우리는

³⁾ 유철규, 「현대 마르크스경제학의 쟁점들」, 김수행신정완 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222. 이곳에서 저자는 신자유주의란 1970년대 이후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본가적 대응방식으로 채택된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흐름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포괄적인 표현인 신자유주의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사회의 계급관계, 국제 분업구조 속에서의 위치, 그 사회의 고유한 역사나 민족주의, 그리고 문화적이거나 제도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 사회 안에서조차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현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⁴⁾ *ibid.*, pp.224-225.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철학에 관심을 집중해야한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모순관계가 필연적 지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해명한 철학자이다. 맑스의 분석은 실천적 현실인식의 방법에 의거한다. 맑스의 후기저작에서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자본주의 분석은 초기저작이에 상당히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맑스의 후기저작이 정치경제학 분석방법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이에 비해 초기저작은 당대의 사상과 현실에 대한 철학적 분석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초기저작에 나타나는 맑스의 분석은 후기저작의 체계적 분석의 철학적 기초를 담고 있다.

초기저작에 나타난 맑스철학의 특징은 첫째, 사유의 출발점이 구체적인 현실이다. 맑스는 이상과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삶을 근거로 해서 현존 질서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당시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과 모순의 발견은 바로 그와 같은 사유의 출발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둘째, 맑스는 비판적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정립해 나간다. 맑스는 동시 대의 다른 개혁론자들의 이론과 실천이 감추고 있는 비현실성과 허구성을 폭로하 면서 자신의 이론과 실천의 방법을 확고하게 제시한다.

마지막 특징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 즉 변혁적 지향이다. 맑스가 추구한 것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진리이다. 이 진리에 이르는 길은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하며 당시 사상과 치열하면서도 현실적인 비판을 통해 진리를 발견했고, 자신이 새롭게 체계화한 이론을 제시했다.6) 그러나 이론의 획득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객관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론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를 중시했기 때문이다.7) 그에게 있

⁵⁾ T.I. 오이저만, 「맑스주의 철학성립사」, 윤지현 옮김(서울: 아침, 1988), pp.12-13. 참조. 저자는 초기저작의 시기구분을 1948년의 「공산당선언」을 포함한 이전의 저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연대기적 구분이라기보다 맑스철학의 형성과정에 따른 구분이다.

⁶⁾ B. 러셀, 『서양철학사(하)』, 최민홍 옮김, (서울: 집문당 2000), pp.1086-1087.

⁷⁾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I』, 최인호외 옮김,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2), p.185.

어서 이론이란 실천과 관계하며, 더 나아가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 하는 이론이며 실천의 철학이다. 그래서 그는 철학이 세계를 변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8)

본 논문은 앞에서 지적한 맑스철학의 특징을 전제한다. 논지 전개의 개괄적인 흐름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맑스가 규정하는 실천적 인간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맑스에게 인간은 철학의 출발점이자 궁극이라고 할 수 있다. 맑스는 초기저작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킨다. 맑스는 인간을 '유적 존재 (Gattungswesen)'이며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고 '실천적 주체'로 이해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자연과 인간, 사회와 인간을 통일적으로 이해한데서 기인하는데, 이러한 그의 인간이해가 어떻게 실천과 결합되는가하는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인간본질로서의 노동의 의미와 노동의 소외에 대한 이해를 실천과 연결시키는 그의 사고가 중점적으로 고찰될 것이다. 맑스는 자연과 인간의 통일이 실천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이 두 존재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서로 결합된다고 본다. 노동은 발전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형태로 나타난다. 소외는 특수한 역사적 산물이다. 맑스는 소외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사적 소유에서 찾는다. 맑스는 소외를 극복함으로써 인간본질로서의 노동을 회복할 수 있고, 인간 해방으로. 나아갈 수있다고 주장한다. 맑스는 소외의 극복을 사적 소유의 완전한 지양인 공산주의에서 찾는다. 따라서 노동의 의미에 대한 분석과 소외의 양태와 원인, 그리고 소외의 극복으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 질 것이다.

4장에서는 맑스철학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일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맑스에 있어 이론이란 실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그 자체의 순수한 이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은 실천과 결부된 혁명의 이론이고 실천의 철학이다. 맑스의

⁸⁾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I』, 박재희 옮김, (서울: 청년사 2002), p.188.

철학은 구체적인 인간 활동의 현실인 역사에서 출발한다. 맑스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분리되지 않는 철학, 즉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해석하며 동시에 변 혁할 수 있는 철학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장의 고찰을 토대로 맑스의 실천철학을 이해하는데 중 요한 개념인 인간, 노동, 이론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현 시기 맑스 철학이 갖는 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 시대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맑스의 실천철학이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인간과 실천

맑스는 초기저작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에게 인간은 철학의 출발점이자 궁극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현존재인 인간이 발을 딛고 서있는 곳에서 시작되었으며, 인간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기 때문이다.

맑스는 인간의 본질이 '유적 존재'이며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고 '실천적 주체'라고 주장한다. 맑스는 선행철학이었던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비판하면서 포이엘 바흐의 유적 존재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 먼저 그는 인간개념을 유물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자연의 선차성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인간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자연과 인간을 통일적으로 이해한다. 맑스는 인간이 자연에 속하면서도 그 조건 속에서 자연을 변형하는 관계에 있음을 밝힌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연을 변형시키는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킨다. 노동은 인간의 생산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규정한다. 사회는 인간에게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라 인간의 생산 활동과 상호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과 인간의 매개는 인간의 생명활동, 즉 노동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인간은 목적의식적 활동, 즉 노동을 하지만, 인간의 노동 방식, 생활태도, 의식 등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산조건과 사회관계, 생산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이지만, 아울러 자신의 사회적 관계들을 개척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이기도 하다.

1)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맑스의 인간이해는 해겔철학의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그의 해겔철학 비판은 당대의 청년해겔학도의 오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맑스는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해겔의 변중법과 철학 일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착수하게 된다. 그는 [서문]에서 해겔의 변중법과 철학 일반에 대해 해겔의 논리학에 완전히 사로 잡혀 있는 청년해겔학도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헤겔철학의 비판이 불가피 하다9)고 말한다. 이는 청년해겔학도가 사용하는 비판적 비판10)의 모태가 되는 헤겔철학의 일반에 대한 비판을 시도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맑스는 [헤겔의 변중법 및 헤겔 철학 일반에 대한 비판]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 독일의 비판은 낡은 세계의 내용에 몰두하였고, 소재에 얽매인 채 전개되는 경향이 너무 강했다. 그 결과 비판함의 방법에 대한 완전히 무비판적인 태도가 생겨났고, 또한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인 물음, 즉 지금 우리는 헤겔의 변증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났다. 현대의 비판이 헤겔 철학 일반, 특히 헤겔의 변증법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무자각 상태는 심각했다. 그 결과 슈트라우스와 부루노 바우어 같은 비판가들은 여전히 헤겔의 논리학에 사로잡혀 있다.11)

맑스는 헤겔철학의 관념론적 전제아래 안주하여 헤겔의 논리학에 사로잡혀 있는

⁹⁾ 칼 맑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최인호 옮김, (서울: 박종철출판사 1991), p.220.

¹⁰⁾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I』, op. cit., pp.102-104. "비판적 비판의 활동은 그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추상만을 지양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 당대에 영향을 끼쳤던 청년헤겔학도는 비판적 비판이 역사의 창조적 요소라고 주장하지만, 맑스는 그들이 사용하는 비판적 비판이란 결국 헤겔과 마찬가지로 추상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¹¹⁾ 칼 맑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op. cit., p.311.

당대 비판가들의 비판이 얼마나 무비판적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당대 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개혁방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상가들을 비판하기 위 한 맑스의 실천적인 작업이었다.

맑스는 헤겔철학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겔철학의 진정한 탄생지요 비밀인 『정신현상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12)고 하면서, 헤겔철학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헤겔의) 첫 번째 오류는 헤겔철학의 출생지인 『정신현상학』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그가 부와 국가권력 등등을 인간존재에서 소외된실재로 파악하였을 때, 이것은 그것들의 사유형식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것들은 사유존재이며, 따라서 한갓 순수한 즉 추상적인 철학적 사유의소외일 따름이다……그러므로 외화의 역사 전체와 외화의 복귀전체는 추상적사유, 절대적 사유, 논리학적 사변적 사유의 생산의 역사와 다를 바 없다.13)

에겔의 『정신현상학』에서는 대상적 존재에 속하지 않는 존재를 주체로 삼고 있다. 현실적으로 스스로 대상이 되거나 자신의 외부에 대상을 가지지 않는 존재란 그 자신이 유일한 존재 즉 신일뿐인데, 결국 이러한 존재란 "비감각적인 존재, 단지 사유된 존재, 다시 말해서 상상된 존재이며 하나의 비존재(허깨비)일 뿐"14)이라고 맑스는 비판한다. 이는 헤겔이 비존재자 즉 정신을 주체로 삼고 있음을 꼬집는 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대상은 주체에 대해서 외적인 것이며 사유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지(知)는 의식에 대하여 대상의 비존재성을 알고 있다. 이는 의식이 대상을 의식의 자기외화로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식이 외적대상이라고 생각한 것마저도 우리의 지(知)일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국 의식대상이라고 생각한

¹²⁾ *ibid.*, p.314.

¹³⁾ *ibid.*, pp.315-316.

¹⁴⁾ ibid., p.323.

것도 의식의 생산물이며 의식의 자기외화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의식은 자신이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을 외화 시키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기의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뒤집어 표현한다면 대상의 산출은 자기의식의 자기외화활동일뿐이며 이는 사유 속에서 자기의식의 외화활동의 결과인 대상을 지양하는 것이 된다.15)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한마디로 인간의 의식이 감성적 확신에서 출발하여 자기의식, 이성, 정신의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올라가 절대지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신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여 개념적으로 파악한다. 즉 헤겔에 있어서는 정신만이 인간의 참된 본질이고 정신의 참된 형식은 사유하는 정신, 즉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정신이다.16) 요컨대, 헤겔에 있어서 주체는 의식 또는 정신이며 현실로살아 움직이는 인간은 객체에 불과한 것이다. 맑스의 분석에 의거하면, 현실에서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 이념(또는 정신)이다. 그러나 헤겔은 인간과 이념의 관계를 뒤집어 이해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런 점에서 헤겔의 철학은 전도된 철학이라고 맑스는 주장한다.

맑스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서로 소외된 상이한 두 개의 실체가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주체는 헤겔처럼 정신적인 존재로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적 감각적 존재로서, 다시 말해 자신의 외부에 대상들을 소유하고 동시에 그 자신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존재로 규정된다. 맑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직접적으로 자연존재이다. 인간은 자연존재로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연 존재로서 자연적 힘들, 생명력들을 갖추고 있는 활동적 자연 존재이며, 이 힘 들은 그의 안에 소질과 능력, 충동으로 존재한다.17)

¹⁵⁾ 박영욱, "맑스의 실천개념과 유물론: 초기저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9), pp.13-16. 참조.

¹⁶⁾ 칼 맑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op. cit., p.313.

곧 인간은 자연적 존재로서 감성적인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감성적인 성질은 대상인 자연에 의해서 제약되어 있다. 예컨대 인간은 배고픔과 같은 욕구를 채우기위해서는 인간 외부에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감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자신의 외부에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일컫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대상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맑스는 인간개념을 유물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자연의 선차성을 주장한다. 자연의 선차성 문제는 철학의 근본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맑스에게 있어서 자연은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며, 인간과 그의 활동도 이 자연 속에서만 존재하고 이루어진다.

모든 인간 역사의 첫 번째 전제는 두말할 것 없이, 살아 있는 개개인들의 존재이다. 따라서 첫째로 설정되어야 할 것은 개개인들의 (물질적) 신체 조직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에 대한 그들의 관계이다.18)

이처럼 맑스는 우리가 임의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할 수 없고, 특정한 삶의 조건이 항상 미리 주어져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대상적 활동을 통해 항상 새롭게 창조하는 현실적인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포이엘바흐 또한 자연개념 안에서 자연의 선차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자연 개념은 자연의 선차성만을 해명하고 있을 뿐,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해명하 지 못한다.

이 활동 즉, 끊임없는 감성적 노동과 창조, 이 생산이야말로 존재하는 감성적

¹⁷⁾ ibid., p.323.

¹⁸⁾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I』, op. cit., p.42.

세계 전체의 토대인 까닭에, 가령 그것이 단 일 년이라도 중단된다면 자연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또한 인간의 전체 세계와 포이엘바흐 자신의 고유한 지각 능력, 아니 그 자신의 생존조차도 당장 사라져 버리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인간의 역사에 선행하는 자연이란 포이엘바흐가살고 있는 자연이 아니며, 또한 새로이 발생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몇몇 산호섬이외에는 오늘날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자연도 아니며, 따라서 포이엘바흐에 대해서도 그러한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19)

맑스는 포이엘바흐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역할을 피동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관조와 감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맑스가 자연개념에서 선차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을 정신이나 개념 활동의 산물로 간주하는 헤겔 관념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며, 또한 자연을 인간의 능동적 활동과 연결시켜 고찰하지 못하는 포이엘바흐의 자연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맑스에 있어서 자연은 인간과 자연이 통일될 수 있는 토대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인간이 인간의 유(類)와 관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을 유적 존재라고 정의한다.

인간은 유적 존재(Gattungswesen)인바, 이는 그가 실천적으로도 이론적으로 도 유(類)를, 다른 사물의 유(類)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유(類)도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또한—그리고 이것은 동일한 사태의 다른 표현이지만—그가 현재의, 살아있는 유(類)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따라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20)

¹⁹⁾ *ibid.*, pp.54-55.

²⁰⁾ 칼 맑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op. cit., p.272.

맑스에 있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자기의식을 지난 존재로 정의된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의 생명활동 자체를 의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인간은 자연물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식을 가진 인간적 자연물이며 자신의 존립을 자각하는 존재이다. 자기의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적 성격으로 규정된다.21)

인간은 의식적인 생명활동을 한다. 의식적인 생명활동은 인간을 동물적인 생명활동으로부터 직접 구별한다. 바로 이러한 구별을 통해서만 인간은 유적 존재로서 존재한다.22) 맑스에게 동물은 자연의 역사적 산물이며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인간은 자연의 산물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유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맑스는 이러한 의식적인 생명활동을 통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한다.

맑스는 현실적으로 실존하고 활동하는 인간에 도달하지 못하고, 인간이라는 추상 물에 머물러서 현실적, 개별적, 육체적 인간을 감각 속에서만 인정한다고²³⁾ 포이엘 바흐를 비판한다. 즉 인간이 자연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적 자연존재로서 의 인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맑스가 인간을 유적 존재라고 이해한 것은 인간이 단순히 타인과 같이 살며 서로 의지한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로 파악한 것이다.

²¹⁾ 이심우, "마르크스에 있어서 인간개념: 경제학·철학수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 교, 1992), pp.19-20. 참조.

²²⁾ 칼 맑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op. cit., p.273.

²³⁾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I』, op. cit., p.55.

2)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맑스는 인간을 유적 존재로 파악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 역사와 인간의 관계 를 해명한다.

맑스가 이해한 사회, 역사와 인간의 관계는 청년 헤겔학도들과 포이엘바흐에 대한 그의 비판을 살핌으로 가능하다. 맑스가 청년 헤겔학도들의 관념론적 변증법을 비판한 것은 자신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다. 이때 맑스가 관념론적 변증법을 비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철학사에 있어서 헤겔과 맑스를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은 포이엘바흐이다.24)

포이엘바흐는 추상적인 것에서 실재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사변철학을 통해서는 참된 객관적인 것에 도달할 수 없다고 헤겔을 비판한다. 대신 그는 감성에 기초한 사유 활동을 받아들인다. 그는 유물론적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헤겔과 마찬가지로 인간본질에 대해 추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인간의 삶에 이르지는 못한다. 즉, 포이엘바흐는 헤겔의 절대정신을 인간주관성의 신격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반면, 신 대신 인간의 유(類)를 완성된 본질로서 인간에게 내면화시키고 만 것이다. 그러나 맑스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적 자연으로서, 실천적 활동을 통해 인간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존재이다. 즉 그는 인간의 실천적활동 속에 인간의 사회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²⁴⁾ 안현수, 「인간적 유물론」(서울: 서광사, 1991), pp.172-180. 참조. 포이엘바흐는 정신과 물질의 통일 및 물질 형태의 다양성과 운동을 인정하고, 또 모든 질적인 것을 양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기계적 유물론을 거부하면서 정신의 고유한 기능을 인정한 점에서 혜겔 좌파에서는 그를 뛰어난 사상가로 본다. 하지만, 포이엘바흐는 물질을 자연 그대로, 정태적으로 직관의 대상으로보고, 그것을 인간 사회와 역사 발전에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맑스와 엥겔스는 사회와 역사에 적용되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창조적 물질 개념을 정초할 수 없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의 유물론이 변증법적 운동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적 상이성을 무시하는 기계적 유물론의 일면성과 경직성을 분쇄하고 존재의 다양한 형태와 운동을 인정함으로써 맑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의중요한 이론적 원천이 되었다고 본다.

포이엘바흐는 인간이 철학의 중심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간학적 유물론'을 자신의 새로운 철학으로 삼는다. 그는 자신의 저작을 통해 이념의 추상성을 비판하고 감각적 존재에 실재성을 부여하는 '감각주의 원리'를 철학의 기초로 삼고 있다. '존 재는 주어이고 사유는 술어'라는 유명한 말을 통해 감각적 실재인 인간을 인식의 주체로 하여 출발한다.25) 이 말은 맑스의 저작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통일, 즉 추상에 가득 찬 천상에서부터 현실적인 지상으로 끌어내려진인간 유(類)라는 개념을 통해 맑스는 인간사회를 파악한다.

포이엘바흐는 현실적 현재는 자연과 개인이요, 추상적인 절대정신이 아니라고 한다. 즉 자연은 일차적 존재요, 사유는 이차적 존재라는 것을 명백히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유는 존재로부터 발생하지만 존재는 사유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유물론의 특징은 인간을 감성적인 주체로 보고 육체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명제를 내세웠으며, 따라서 인식주관은 논리적인 추상체가 아니라, 현실적인인간 즉 감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철학은 감성적인 인간을철학의 중심으로 둔다는 의미에서 인간적 유물론이라고 불린다. 그는 또한 헤겔철학이 자연의 본질을 자연 밖에다, 인간의 본질을 인간 밖에다, 사유의 본질을 사유작용 밖에다 정립하였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철학이란 자연을 토대로 하여 자기의식을 가진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26)

포이엘바흐는 헤겔 철학이 가지고 있던 주체를 자연적인 인간으로 돌리는 성과를 내었지만, 자연 앞에서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맑스는 포이엘바흐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만 보고 역사적, 사회적으로 고찰하지 못한데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한다. 맑스에게 있어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런데 사회의 현실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생산관계이기 때문에 인

²⁵⁾ 데이비드 맥렐런, 「청년헤겔 운동」, 홍윤기 옮김, (서울: 학민사, 1988), pp.138-140. 참조.

²⁶⁾ 이재후, "마르크스 초기 휴머니즘 연구: 경제학·철학초고 및 독일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1987), pp.13-14. 참조.

간의 존재양식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을 수 없다.27)

맑스는 신비화한 절대정신을 내세우고, 이념의 선차성을 주장하는 헤겔의 관념론에 대한 반정립으로서의 포이엘바흐의 유물론적 인간학을 긍정하면서도 [포이엘바흐에 관한 태제](이하 태제로 약칭)에서 그 실천개념의 부재와 아울러 몰역사성과비현실적 추상성들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포이엘바흐는 인간의 능동성을 해명하지 못함으로써 사회,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포이엘바흐의 유물론은 사변적 관념론에 대한 비판적 방법으로는 적절하나 현실적 세계를 파악하는 인식의 방법으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적 현실을 그의 추상적인 인간이해의 방법으로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러한 포이엘바흐의 한계점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이엘바흐는 종교적인 자기소외라는 사실, 종교적인 세계 및 세속적인 세계 로의 세계의 이원화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의 작업은 종교적 세계를 그것의 세속적 기초로 해소한 데에 그 요체가 있다. 그러나 세속적 기초가 자기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위로 올라가 구름 속에 하나의 자립적인 영역으로 스스로를 고정시킨다는 사실은 이러한 세속적 기초의 자기분열과 자기모순으로부터만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세속적 기초 자체가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의 모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혁명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세속적 가족이 신성가족의 비밀로서 폭로된 이후에 이제전자 자체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파괴되어야 한다.28)

포이엘바흐는 종교적 세계가 세속적 세계로부터 이탈하여 자립적인 천상적 존재 로 고착화된 것을 인간의 욕구와 원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²⁷⁾ 정문길, 「소외론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pp.12-16. 참조.

²⁸⁾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I』, op. cit., p.186.

세속세계에서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간사회의 현실적인 모순이 천상적 존재의 실체화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포이엘바흐는 종교적인 속박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유적본질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통해서 모순에서 벗어나 해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29) 이에 대해 앞의 인용문에서 본 바와같이 맑스는 인간본성이 소외되는 종교적 세계의 실체화는 인간현실의 모순에서결과한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현실의 모순을 지양해야만 종교적 세계의 허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한다.

다시 말해, 포이엘바흐는 종교적 본질을 인간의 본질이 소외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종교적 본질을 분석함으로써 인간본질을 도출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유적본성을 '우정', '사랑'과 같은 인간의 종교적 심성에서 찾음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심성에 종교적 심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맑스는 바로 이러한 연역적이고 환원적인 분석에 입각한 인간이해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에서 출발하여 구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30)

포이엘바흐는 종교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로 환원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 이란 개별적인 인간 각각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다. 현실에 있어 그것은 사회관계의 총체(das ensemble der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이다. 포이엘바흐는 이 실제적인 본질을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다.

- 1) 인간의 본질을 역사과정으로부터 떼어내고, 종교적 심성 그 자체가 독립적 인 것인 양 고정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추상적인-고립된-개인을 전제로 해야 했다.
- 2) 따라서 인간의 본질을 단지 유(類)로서만, 즉 많은 개인들을 자연적인 방식

²⁹⁾ 이형용, "마르크스의 인간 이해와 그 의의에 관하여: 포이에르바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00), pp.12-13. 참조.

³⁰⁾ 안상헌, "초기맑스의 〈실천적 유물론〉의 형성과정: 맑스의 〈이론과 실천의 통일〉의 방법론적 성격을 중심으로" (철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0), p.199.

으로 결합하고 있는 내적이고, 말이 없는 보편성으로서만 파악하였다.31)

맑스는 포이엘바흐가 현실적 본질에 대한 비판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 피하게 역사과정을 도외시하고 종교적 심성을 그 자체로서 고정시켰다고 본다. 또한, 그는 추상적인 즉 고립된 개인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인간의 본질을 단순한 유(類)로서 즉 다수의 개인을 자연적으로 결합하는 보편성으로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한다.

포이엘바흐에게 사회는 이미 주어진 고정 불변의 것으로 즉,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사회, 역사를 자연적 소여로 보고, 사랑을 인간의 자연적 규정 속에서 비롯된 저항할 수 없는 자연적 실재로 보는 관점32)은 인간의 생명활동인 의식적이며 실천적인 노력 없이도 인간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파악됨으로써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이해는 결국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현실은 인간 활동의 역사적 산물이고, 인간 활동의 산물인 사회적 조건이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현실로부터의 출발은 구체적인 인간 활동으로부터의 출발이며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와 역사로부터의 출발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맑스에게 있어서 실천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하는 대상적 활동이며 일체의 행동이다. 실천의 주체는 인간이고 객체는 인간의 실천적 작용이 가해지는 객관적 실재의 영역이다. 이 두 관계 항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은 실재를 물질적으로 변형시키는 인간 활동이다. 즉 실천적인 인간 활동 과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만 다양한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맑스가 주

³¹⁾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I』, *op. cit.*, pp.186-189.

³²⁾ 황성혜, "마르크스의 실천하는 인간의 문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0), pp.30-31. 참조.

장하려는 요지이다. 인간은 노동이라는 능동적인 대상적 활동 속에서, 생산 활동속에서 자신의 생활을 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즉 생명활동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 자신은 활동의 주체가 되어 사회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또한 구체적인 사회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사회관계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고 인간은 사회관계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맑스는 사회를 인간에게 내재하는 추상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산 활동속에서 비롯되는 결과물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과 인간의 매개는 인간의 생명활동,즉 노동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33) 그렇기 때문에 맑스의 유(類)는 포이엘바흐의 유(類)가 갖는 추상성,즉 생득적 본질이란 추상성을 벗어나고 있다. 그의 [테제]에서는 실천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활동은 생산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만,더 나아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활동을 의미한다. 맑스는 인간을 단지 생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사회적 조건, 제도를 인간에게 맞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존재로 규정한다.이와 같은 실천적 활동속에서 인간은 노동활동뿐 아니라 변혁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할 수 있다.인간은 실천적 활동을 매개로 하여 인간 및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삶을 영위하게 된다.

3) 실천적 주체로서의 인간

포이엘바흐는 봉건지배와 봉건귀족의 이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변하고 반영하

³³⁾ 천선아, "K. 맑스 초기저작에 나타난 '철학의 근본문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1992), pp.25-26. 참조.

는 기독교와 철학적 관념론에 대한 명확한 대결의식을 통해 자신의 사유를 전개한다. 근대 유물론에 대한 한계인식과 구별의식에서 출발한 그의 인간학적 유물론은인간을 감성적 존재로 보면서 인간의 감각이 갖는 보편적 성격을 강조하였다는 점과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대결의식으로서의 차이를 드러내며,이는 포이엘바흐의 철학적 특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이엘바흐는 비록 인간의 사회성이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구별해주는 한 계기임을 의식하고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성의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는 못했다.34)

포이엘바흐는 감각에 기초한 사유를 통해, 인간적 유물론의 입장을 자신의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는 또한 인간은 사유와 의지, 그리고 사랑을 본질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생득적 본질에 의해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즉 사랑은 인간의 감성적 충동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갖는 모든 감각적 대상의 원천이기도 하다. 인간은 본질적, 자연적, 생득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랑을 통해 대상적 존재가 된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외부세계 및 인간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랑을 통해 인간은 공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존재, 즉 유적 존재가 된다. 곧 포이엘바흐에게서 유적 존재란이미 인간 속에 완성된 형태로, 인간의 자연적 본질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맑스는 포이엘바흐의 생득적인 본질로서 유적 존재, 즉 본질적인 인간의 사회성을 반대하고 노동 속에서 인간의 대상화 활동과 생명활동을 파악한다. 포이 엘바흐의 한계를 직시한 맑스는 인간을 단지 수동적인 자연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대상적 활동으로서의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노동, 즉 생산 활동을 수행 하는 인간적 자연으로서 파악하였다.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 역시 다른 자연과 마찬 가지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수성에 의해 그것에 적합한 생명활동을 영위한다. 그러한 활동으로서 노동은 인간의 생산 활동이며 인간이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만드는 활동이다. 따라서

³⁴⁾ 이형용, "마르크스의 인간이해와 그 의의에 관하여: 포이에르바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1992), p.38.

인간은 감각하는 존재로서 세계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활동을 매개로 하여 세계와 관계하는 것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유(類)는 본질적으로 사회성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활동 형식 속에서 사회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맑스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인간은 실천하는 존재라고 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활동을 위해 생산 활동을 하지만 인간의 실천이 여기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노동활동 자체는 외적대상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대상화 활동은 실천 즉 객관적 실제를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맑스에게 인간은 실천적 활동을 하는 존재로서, 역사를 이끌게 된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생명활동을 지속시킨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라 함은 인간은 끊임없이 외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외적대상과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합목적적 행위 곧 실천적 활동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사회관계가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인간이 실천적존재라는 것은 곧 인간이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그는 인간의 삶을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사회, 역사 속에서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맑스는 인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규정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가 가능하였고, 보편적인 인간해방을 위한 과학적인 공산주의 운동이론을 정초할 수 있게 되었다.

맑스는 인간의 물질적 생산 활동인 노동의 사회적 성격과 역사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노동개념을 인간의 사회적 실천과 결합시켰다. 그는 인간의 사회 변혁적 실천의 현실적 토대가 사회적 생산 활동인 노동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생산의 방식을 단지 개개인들의 육체적 생존을 재생산해 낸다는 측면에서 만 고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생산의 방식이란 곧 이러한 개개인들의 일정한 활동의 방식이고,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일정한 방식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일정한 생활양식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대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그들의 생산 즉, 무엇을 생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하는가와 일치한다. 이렇듯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는 그들이 수행하는 생산의 물질적 조건들에 따라 좌우된다.35)

맑스는 생산방식을 개개인의 육체적 생존의 재생산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생산방식은 개개인들의 삶의 방식이며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규정은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기도하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의 존재방식은 그들이 무엇을 생산하며 어떻게 생산하는 가 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맑스의 문제의식은 현실변혁을 위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실천은 유물론적으로 파악된 특정한 형태의 변혁적 실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인간이해는 노동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유물론적인 해명이고, 인간의 생존활동인 노동에 기초한 특정한 역사적인 현실과 관련하여 변혁적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³⁵⁾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I』, op. cit., pp.42-43.

3. 노동과 실천

맑스는 헤겔이 노동을 인간의 본질로 파악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을 추상적으로만 파악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연의 선차성에 대한 이해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파악한 포이엘바흐는 인간이 단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즉 자연존재로서 파악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통일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맑스는 자연과 인간의 통일이 실천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맑스에 있어서 자연과 인간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 두 존재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서로 결합된다. 노동은 인간 자신의 고유한 활동이며 인간의 고유한 본질이다. 인간의 본질로서의 노동의 의미는 동물과 같은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니라 의식적인 생산 활동이다.

사회적 관계인 생산관계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형태로 나타난다. 소외는 네가지 양태로 나타나는데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생산행위로부터의 소외, 유(類)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가 그것이다. 이러한 소외는 사적 소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적 소유의 지양으로 인간의 자기복귀 즉 인간본성의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완전한 사적 소유의 지양은 공산주의를 통해서가능하다고 맑스는 주장한다.36) 공산주의는 임박한 역사적 발전에 필수적인 현실적 계기이며 인간의 해방과 인간 본질로서의 노동을 재획득하는 것이고 임박한 미래의 필연적 형태이다.

³⁶⁾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남상일 옮김, (서울: 백산서당 1992), p.93.

1) 인간본질로서의 노동

맑스는 헤겔의 위대함을 『정신현상학』에서 헤겔이 노동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확실히 헤겔은 노동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노동이라는 개념에 철학적 의의를 부여한 철학자이다. 그러나 맑스는 헤겔철학의 근본성격이 갖는 한계로 인해 헤겔이 유일하게 알고 인정하는 노동은 추상적인 정신적인 노동일수밖에 없다고 말한다.37)

맑스는 헤겔이 노동을 관념론적으로 인간의 본질로 파악했으며, 추상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맑스는 노동의 과정을 실재적이고 객관적이며, 인간의 자기의식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적 세계에서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노동이인간의 자기의식 밖의 세계에 흔적을 남길 때에 비로소 역사적 과정이 된다.

맑스는 노동을 인간의 자연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인간 활동임과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인간 활동으로 파악하며, 사회 및 역사의 발생을 자연에 대한 인간의 노동을 통해 설명한다.

동물도 생산하기는 한다. 꿀벌, 비버, 개미 등등처럼 동물은 둥지, 주거를 짓는다. 그렇지만 동물은 자기나 자신의 새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생산한다; 동물은 일면적으로 생산하지만, 반면에 인간은 보편적으로 생산한다; 동물은 직접적인 육체적 욕구의 지배 하에서만 생산하지만, 반면에 인간 자신은 육체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이 생산하며, 그러한 욕구로부터의 자유 속에서만 비로소 진정으로 생산한다.38)

맑스에게서 인간의 노동은 삶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본성을 발전시키기

³⁷⁾ 칼 맑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op. cit., pp.317-318.

³⁸⁾ ibid., p.274.

위한 수단이다. 동물처럼 노동자체가 곧 인간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맑스는 노동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며, 사유 속에서의 노동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의 노동으로 본다.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과 생산을 한다. 이러한 유적 활동은 바로 생산적 활동이다. 39) 맑스에게 유적 활동은 자연을 인간화된 자연으로 변형하는 활동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사회적, 역사적 삶의 근거이기 때문에, 인간 활동을 유물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역사적 삶을 유물론적으로 해명하는 데서 주요한 전제가 된다.

헤겔은 인간의 활동을 자기의식의 노동행위로 파악하였을 뿐, 인간의 활동을 대상적 활동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맑스는 헤겔의 관념론과 이전의 유물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까지는 모든 유물론(포이엘바흐의 유물론을 포함하여)의 주요한 결점은 대상, 현실, 감성이 단지 객체 또는 직관의 형식 하에서만 파악되고, 감성적인인간 활동, 즉 실천적으로, 주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활동적측면은 유물론과 대립되는 관념론—이것은 물론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활동 그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에 의해 추상적으로 전개된다.40).

맑스가 비판하려는 요지는 이전의 유물론이 의식적인 생명활동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맑스는 유적 활동을 의식적인 생명활동으로 정의하며, 인간 자신의 물질적인 생활을 생산해 내는 생산적 활동이라고도 정의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활수단을 생산해 냄으로써 자신을 동물과 구별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물질적 생활을 생산 한다41)는 것이다.

³⁹⁾ *ibid*.

⁴⁰⁾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I 』, op. cit., p.185.

⁴¹⁾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I」, op. cit., p.42.

2) 소외된 노동

소외개념은 맑스 이전인 헤겔과 포이엘바흐가 먼저 사용했었다. 그러나 맑스가 사용한 소외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주체, 객체의 변증법으로 소외개념을 설명하고 있으 며, 인류전체의 역사발전을 주체와 객체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 으로 보고 있다. 헤겔은 객체의 인식과정을 주체에 의해 객체가 포함되어 단지 자 기의식 또는 정신의 현상만이 남게 되는 과정, 즉 주체와 객체 사이의 구별이 실제 적으로 지양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혜겔에 따르면 정신적인 것만이 현 실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대상적 세계의 소외가 지양된다. 따라서 혜 겔에 있어서 소외란 외적이고 객관적인 현상계와 접촉할 때의 의식의 상태를 의미 한다. 이때 대상은 인간에게 외적이며 낯선 것으로 나타나며, 의식은 이러한 타자 존재 속에서 격리되고 소외된다. 의식은 외적 대상으로 나타나서 의식의 자립성을 부정하는 대상이 의식 자체에 의해 투사된 것에 불과하며, 의식은 근본적으로 자기 의식으로서 오로지 타자 속에서 자신을 파악할 때에 소외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 킨다. 의식바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대상들은 결국 의식의 현상적 표현에 불과하고, 의식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인 식하게 되면 의식은 이 대상화 되고 소외된 타자존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결 국 의식 그 자체의 바깥에는 어떠한 다른 인식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헤 겔 소외개념의 핵심이다.42)

하지만 맑스는 이러한 헤겔의 소외개념이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대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사유의 대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순수사유의 변증법을 고집하고 있는 헤겔에게 있어서, 부와 국가권력 및 기타의 사회제도들은 인간본질의 소외로 간주되며, 그 소외는 사유와 자기의식으로 환원된다.

⁴²⁾ 칼 맑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op. cit., pp.318-319.

이때 소외는 사유 속에서만 발생하는 정신적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43) 헤겔에게 주체-객체의 대립은 사유 속에서의 대립이기 때문에 헤겔에게 있어서의 소외의 극복은 사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의 운동일 뿐이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은 이러한 사유의 소외와 그 소외의 지양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비판한다. 헤겔에게 있어서 소외는 의식의 상태로 다른 의식의 상태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맑스에게 있어서 소외는 실재하는 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대상과 관계하는 현실적인 행위의 영역에서만 제거될 수 있다.

맑스는 헤겔의 소외개념을 비판하는 가운데 자신의 소외개념을 형성한다.

노동(Arbeit)이 생산하는 대상, 즉 노동의 산물이 소원한 어떤 것으로, 생산자 와는 독립된 힘으로서 노동에 대립한다. 노동생산물은 대상 속에 구체화된 노동이며, 물질로 전화된 노동이다. 즉 그것이 노동의 대상화이다. 노동의 실현은 노동의 대상화이다. 이러한 국민경제학적 상황 아래서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에게는 탈현실화로 나타난다. 대상화는 대상의 상실과 그것에서의 속박으로 나타나고, 전유는 소외(Entfremdung) 곧 외화로 나타난다.44)

맑스는 소외를 노동, 그것도 국민경제학적 상황에서의 노동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소외가 역사적인 결과인가, 아니면 인간존재의 본 질적 규정인가 하는 중요한 물음으로 귀결된다.45)

맑스는 소외가 특수한 역사적 형태임을 주장한다. 그는 소외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대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게 된다.

⁴³⁾ ibid., pp.319-320.

⁴⁴⁾ ibid., p.268.

⁴⁵⁾ 이심우, "마르크스에 있어서 인간개념: 경제학·철학수고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2), p.42.

노동자는 부를 보다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의 생산이 힘과 범위에 있어 더욱 증대되면 될수록, 더욱더 가난해 진다. 노동자가 상품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는 더욱더 저렴한 상품으로 된다. 사물세계의 가치 중식에 인간세계의 가치절하가 정비례한다. 노동은 단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서, 게다가 그것이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 비례하여 생산한다.46)

이러한 사회적 사실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존재, 즉 노동의 결실을 노동자가 향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조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향유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노동자와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의 관계는 우연적인 관계가 아니며,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은 노동자와 무관한 존재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직접적인 외화라는 필연적 관계를 지닌다. 즉 노동자는 상품을 만듦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상품으로 만든다. 노동은 사용가치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한다. 그러나 노동이 생산하는 대상, 즉 노동의 생산물이 하나의 낯선 존재로서 노동과 대립하는 노동의 대상화가 되고, 노동의 이러한 현실화는 노동자의 탈현실화로서, 대상의 상실과 대상에 대한 예속으로서, 소외로서 나타난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의 양상을 네 가지 측면으로 고찰한다. 첫째는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적 노동대상에 자신의 생명을 집어넣는데, 자신의 생명이 투여된 이 노동의 산물이 노동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⁴⁶⁾ 칼 맑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op. cit., p.268.

노동은 부자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궁핍을 생산한다. 그것은 궁전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움막집을 생산한다. 그것은 미를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불구를 생산한다. 그것은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지만 노동자의 일부를 야만적인 노동으로 되던지며, 또 다른 일부를 기계로 만든다. 그것은 정신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정신과 박약과 백치병을 생산한다.47)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부르조아 사회에서는 노동의 현실화가 곧 노동의 상실로 나타나는 역전이 일어난다. 자신의 생산물을 통한 노동자의 외화는 그의 노동이 대 상 곧 자신의 외부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노동이 노동자의 외 부에 노동자와는 무관하게, 노동자에게 낯설게 존재하고 노동자에게 대항하는 독립 적인 권력으로 되었다는 것, 즉 노동자가 대상에게 부여한 생명이 노동자에게 적대 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8)

둘째, 생산행위로부터의 소외이다. 노동자의 노동 결과로서 노동생산물로부터 소외는 외적 소외이다. 맑스는 더 나아가 내적 소외에 대해 눈을 돌린다. 노동의 결과로서 소외가 일어났다면 그 결과를 낳는 생산행위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났음을 본 것이다. 노동은 노동자에게 외적이고, 노동은 노동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본질을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며 인간노동의 특징인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신을 학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자신이 노동하지 않을 때에는 편안하고 노동할 때는 편안하지 못하다. 이러한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 노동으로 나타난다.49) 또한, 노동행위가 타자에게 속하게 됨으로 해서 노동자는 그 자신을 상실하게 되며, 동물적 기능들, 즉 먹고, 마시고, 생식하는 일에서만

⁴⁷⁾ *ibid.*, p.270.

⁴⁸⁾ ibid., p.269.

⁴⁹⁾ *ibid.*, p.271.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낀다. 요컨대, 동물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이 동물적인 것으로 된다.50)

셋째, 유(類)로부터의 소외이다. 맑스는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와 생산행위로부터의 소외에서 유(類)로부터의 소외를 도출해낸다.

맑스에게 있어서 유적 존재개념은 자연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보편적 존재방식이자, 노동과 노동생산물을 통해 확인되고 실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적 존재는 개별적 개인적 존재방식이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총체적인 존재방식이다. 맑스의 유적 존재는 육체를 가진 자연적 인간이 노동을 통해대상 안에 실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존재방식이라 할 수있다. 그런데 노동의 대상이 탈취됨으로 해서 인간은 자신의 유적 존재를 탈취 당하게 된다. 이는 곧 소외된 노동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적 능력까지도 작용해인간과 인간을 낯선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육체를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51) 이는 결국 인간의 대상적 삶인 유적 삶을 박탈당하게 됨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맑스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말한다. 그는 이러한 소외를 인간이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자신의 생존활동으로부터, 자신의 유적 존재로부터 도출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본다.

인간이 자기자신과 대립할 때에는, 그는 다른 인간과 대립하는 것이다. 자신의 노동,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 인간 자신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있어 유효한 것은 다른 인간, 다른 인간의 노동 및 그 대상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요컨대, 인간이 자신의 유적 존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쌍방이 인간적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2)

⁵⁰⁾ ibid., p.272.

⁵¹⁾ *ibid.*, p.275.

맑스는 이렇듯 국민경제학으로부터 도출한 사실, 즉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물과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소외된 노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의 소외된 노 동에 대한 분석 목표는 노동자와 그의 생산물의 관계를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관계 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맑스는 소외된 노동에 대한 분석에서 사적 소유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간다.53) 맑스는 국민경제학의 전제들을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국민경제학의 언어와 법칙을 받아들였다. 맑스는 국민경제학 자체로부터 노동자는 가장 빈곤한 상품으로 전략하고, 노동자의 빈곤은 노동자에 대한 생산의 권력 및 그 규모와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전 사회는 소유자와 무산노동자의 두 계급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도출해 낸다.54) 이는 곧, 국민경제학이 사적 소유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학자들은 사적 소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맑스는 비판한다. 그러므로 맑스는 국민경제학과는 다른 방법론적 접근, 즉 사적 소유와 소외된 노동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맑스는 사적 소유와 소외된 노동이 국민경제학의 중요한 범주임을 밝히고 나서, 이 양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말한다.

사적 소유는 외화된 노동, 곧 자연과 자기 자신에 대한 노동자의 외적인 관계의 산물이요, 결과요, 필연적 귀결이다. 따라서 사적 소유는 외화된 노동, 곧 외화된 인간, 소외된 삶, 소외된 인간이라는 개념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다. 물론 우리는 국민경제학으로부터 외화된 노동이라는 개념을 사적 소유의 운동의 결과로서 획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분석해 보면, 사적 소유가 외화된 노동의 근거 혹은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적 소유는 외화된 노동

⁵²⁾ *ibid.*, pp.275-276.

⁵³⁾ 허재훈, "마르크스에 있어서 노동개념의 형성과정: 마르크스의 해겔비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1992), p.45.

⁵⁴⁾ 칼 맑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op. cit., p.266.

의 결과라는 점이 밝혀진다.55)

맑스는 사적 소유가 소외된 노동의 산물이며 노동이 외화되는 매체라고 주장한다. 소외된 노동의 물질적이고 집약된 표현이 사적 소유라고 보면 사적 소유가 소외된 노동을 산출한다. 더 나아가 사적 소유의 사회적 해방은 노동자 해방이라는 정치적 형식으로 표현된다.56)

3) 소외의 극복

맑스는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활동, 즉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가공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인간의 고유한 본질임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노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맑스는 사적 소유가 소외된 노동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노동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대상화 작용이 인간 자신의 탈대상화로 드러나는 사회적조건이란 다름 아닌 사적 소유가 그 사회의 소유양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조건을 철폐하는 것이고 결국 노동 소외의 극복을 의미한다.57) 그러므로 소외된 노동을 극복하는 과정은 사적 소유를 지양하는 과정이다. 맑스에 따르면,

인간의 자기소외로서의 사적 소유의 적극적 지양으로서의 공산주의. 그리고

⁵⁵⁾ ibid., p.278.

⁵⁶⁾ *ibid.*, p.279.

⁵⁷⁾ 이승원, "초기맑스에서의 노동과 소외: 경제학·철학초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1991), p.45.

따라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적 본질의 현실적 자기화로서의 공산주의; 그러므로 사회적 인간, 즉 인간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자기 자신으로의 완전한, 의식적인, 지금까지의 발전의 부 전체 내부에서 생성된 귀환으로서의 공산주의. 이러한 공산주의는 완성된 자연주의=인간주의로서, 완성된 인간주의=자연주의로서 존재하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충돌의 참된 해결이며, 실존대와 본질, 대상화와 자기 확증, 자유와 필연, 개체와 유(類) 사이의 싸움의 진정한 해결이다.58)

맑스는 소외의 극복은 사적 소유와 소외된 노동을 폐기하는 데에서 출발해야한 다고 말하면서, 공산주의를 인간생활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방향, 즉 소외를 극복하 고 인간과 자연 간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맑스가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는 공산주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맨 먼저 맑스가 주목하는 것은 조야한 공산주의다. 맑스는 사적 소유에 보편적인 사적 소유를 대치시키는 공산주의가 바로 조야한 공산주의라고 주장한다. 이 조야한 공산주의는 소유의 지배가 너무 강대하여 모든 것은 만인에 의해 점유되어야만하고, 만인에 의해 점유될 수 없는 인격이나 재능 등을 도외시 하는 것⁵⁹⁾을 특징으로 한다.

이 공산주의는—인간의 개성을 도처에서 부정함으로써—그것의 부정인 사적 소유의 수미일관한 표현, 바로 그것일 뿐이다. 보편적인, 힘으로서 자신을 구성하는 시기심이란 탐욕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탐욕이 단지 다른 형식으로 충족되는 은폐된 형태이다. 그와 같은 것으로서의 각각의 모든 사적 소유의 사상은 더 부유한 사적 소유에 대해서 적어도 시기심과 평준화 욕구로서 반대하고 있고, 그리하여 이러한 시기심과 평준화 욕구는 심지어 경쟁의 본질을

⁵⁸⁾ 칼 맑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op. cit., pp.297-298.

⁵⁹⁾ *ibid.*, p.295.

이루고 있다. 조야한 공산주의는 표상된 최소치로부터 이러한 시기심과 평준화를 완성시킨 것일 뿐이다. 조야한 공산주의는 특정의 제한된 한도를 지닌다.60)

맑스는 이러한 조야한 공산주의에서는 사적 소유의 지양이 아니라 사적 소유의 보편화, 욕구의 극복이 아니라 그 일반화, 소외된 노동의 폐기가 아니라 그것의 만 인에의 확대가 있을 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 맑스가 밝히는 공산주의의 다음 단계는 유적 존재가 소외된 형태로 나타난 국가나, 소외된 노동의 근본적 원인인 사적 소유가 불철저하게 지양된 불완전한 상태의 공산주의이다. 따라서 맑스는 이러한 공산주의를 사적 소유의 개념을 파악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한다.⁶¹⁾ 그러므로이 단계의 공산주의는 불완전한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공산주의에서도 인간의 자기 자신에로의 복귀 또는 재통합, 즉 인간의 자기소외의 지양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주의는 아직 사적 소유의 본질과 욕구의 인간적본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고, 그 욕구에 의해 감염되어 있어서 완전한 형태로 사적 소유가 지양되지 않는다고 맑스는 주장한다.

맑스는 사적 소유의 사상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사유된 공산주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현실적 사적 소유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공산주의적 행동이 있어야한다.62)고 말한다. 그가 주장하는 사적 소유의 지양은 인간의 자기복귀 즉 인간본성의 해방이므로, 노동과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사회와 자연에 대한 종래의 인간관계를 철저히 회복하는 것이다. 활동과 향유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실존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적 활동이며 사회적 향유이다.63) 사회적이라는 말의 의미

⁶⁰⁾ *ibid.*, pp.295-296.

⁶¹⁾ ibid., p.297.

⁶²⁾ ibid., p.298.

⁶³⁾ ibid., p.299.

는 다른 사람과의 직접 협력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인간과 사회 사이에는 상호 인과성이 있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 창조한 사회가 또한 인간을 창조한다. 사회 자체가 인간을 인간으로서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는 인간에 의해 생산된다. 따라서 사회는 인간과 자연을 실체로 하여 총체적으로 완성된 통일체이기 때문에 자연의 진정한 부활인 바, 인간의 자연주의와 자연의 인간주의가 모두 충족된 상태이다.64)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이 올바르게 합일되는 새로운 사회 지평이 열리게 된다.

맑스에게 공산주의는 임박한 역사적 발전에 필요한 현실적 계기요, 인간의 해방과 재획득이다. 공산주의는 임박한 미래의 필연적 형태요, 힘 있는 원리이며, 해결된 역사의 수수께끼이다.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있어 조성되어야 할 하나의 상태가아니며, 혹은 현실이 따라가야 할 하나의 이상도 아니다. 공산주의는 현재의 상태를 폐기해 나가는 현실의 운동이라고 맑스는 주장한다. 이 운동의 여러 조건들 역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제들로부터 생겨난다.65) 이와 같은 전제로부터 등장하는 공산주의가 맑스가 주장하는 인간생활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방향, 즉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통일이다.

⁶⁴⁾ *ibid.*, pp.299-300.

⁶⁵⁾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I』, op. cit., p.67.

4. 이론과 실천

맑스는 포이엘바흐를 비롯한 전통적인 유물론의 인간이해는 추상적 인간관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본다. 그가 볼때 전통적인 유물론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활동과는 무관한 관념적인 철학에 불과했다. 맑스의 유물론은 그들과 달리, 구체적인 인간활동의 현실인 역사에서 출발한다. 맑스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분리되지 않는 철학, 즉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해석하며 동시에 변혁할 수 있는 철학을 원했다.

맑스에 있어 이론이란 결코 실천과 동떨어진 순전히 사변적이거나 공리공론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천과 결부된 혁명의 이론이고 실천의 철학이다. 맑스에게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란 현실적인 모순의 발생을 인식하고 그 모순을 극복해가는 혁명적 실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전통적 유물론 비판

맑스는 [테제]에서 포이엘바흐의 인간학적 유물론의 한계인 자연주의적 감성론을 비판함으로써 『경제학-철학 초고』에서 보여준 사유를 더욱 심화시킨다. [테제]는 『경제학-철학 초고』의 사유와 현실인식의 방법에서 『독일이데올로기』의 사유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맑스는 [테제]에서 처음으로 포이엘바흐의 인간학적 유물론의 관조적 성격과 추상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명료화했다. 앞에서도 서술 했던 것 같이 그는 포이엘바흐의 유물론을 비판의 무기로 삼아 청년헤겔학도들의 사변적 방법을 비판한다. 그

러나 포이엘바흐의 유물론적 시각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과는 달리, 맑스는 포이엘바흐가 자연에 대해서는 말하면서도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이엘바흐의 유물론적 전도의 방법은 신학적 관념론의 원리에 근거한 제 이론들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이론적 혁명이었기 때문에, 맑스는 그의 유물론을 수단으로 하여 사변적 관념론의 이론과 실천을 비판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포이엘바흐의 유물론은 사변적 관념론에 대한 비판하는 역할만 했을 뿐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의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 즉 구체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적 현실을 포이엘바흐의 추상적인 인간이해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맑스는 [테제]에서 포이엘바흐를 포함한 고전적 유물론을 비판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유물론(포이엘바흐의 유물론을 포함하여)의 주요한 결함은 대상, 현실, 감성이 오직 객체의 혹은 관조의 형식 아래에서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감성적 인간 활동으로서, 실천으로서 파악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능동적 측면은 유물론에 대립해서 관념론에 의하여—물론 관념론은 현실적 감성적 행위 자체를 알지 못한다—추상적으로 발전된다. 포이엘바흐는 감성적인 객체들—사유 객체들과 현실적으로 구별되는 객체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활동 자체를 대상적 활동으로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이론적 태도만을 진정으로 인간적인 태도라고 간주하며 반면에 실천은 오직 그 더러운 유태인적 현상 형태 속에서 파악되고 고정된다. 그러므로 그는 '혁명적', '실천적·비판적' 활동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66)

맑스는 포이엘바흐를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가 17-18세기의 고전적 유물론의 태도를 고수한다고 보았다. 맑스에게 고전적 유물론의 세계상은 너무 정태적이고 기계적이다.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의 유물론자는 생명 없는 객관적 현실을 가

⁶⁶⁾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I』, op. cit., p.185.

정했다고 하면서 포이엘바흐를 고전적 유물론에 포함시킨다.67)

맑스가 지칭하는 '대상', '현실', '감성'은 인간의 활동의 산물, 즉 역사적인 산물을 지칭한다. [테제 1]은 인간 활동의 산물인 대상 즉 실천적 작용을 통해 산출된 산물을 이론적, 관조적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고전적 유물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맑스가 말하는 자연은 존재론적인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의 산물로서의 자연이라는 의미이지 자연일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68) 포이엘바흐의 자연과 대상개념이 감성적으로 포착되는 모든 자연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전통적유물론의 존재론적 성격에서 생기는 당연한 귀결이다. 맑스는 인간까지도 추상적인 자연존재로 파악함으로써 인간이 실천적, 역사적 존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전통적 유물론을 단호하게 비판했다.

맑스는 관념론적 실천을 비판한다. 인간의 활동적인 측면이 유물론과 대립되는 관념론에 의해 추상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관념론은 인간사회와 역사를 인간활동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 활동을 인간의 의식 혹은 사유 활동으로 파악함으로써 결국 인간 활동의 산물인 현실을 인간의식의 산물로 파악하고 말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그가 헤겔철학과 청년헤겔학파의 현실인식의 방법을 사변적인 방법이라고 줄곧 비판해온 것과 같은 맥락에 서었다고 할 수 있다. 맑스는 포이엘바흐가 분명히 실천을 '더러운 유태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이론적인 태도만을 참된 인간적인 태도로 간주함으로써 혁명적, 즉실천적인 활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는 인간활동의 실천적 측면을 간과한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맑스는 인간에 의한 환경의 변화, 즉 인간 활동에 의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부정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의한 인간의 변화만을 강조하는 실천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⁶⁷⁾ 안현수, 『인간적 유물론』 (서울: 서광사 1991), pp.208-209.

⁶⁸⁾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I』, op. cit., p.55.

환경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유물론적 교의는 환경이 인간에 의해 변화되며 교육자 자신도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다. 그러므로 그 유물론적 교의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두 부분-그중의 하나는 사회를 초월해 있다-으로 탐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의 변화와 인간 활동의 변화 혹은 자기 변화와의 일치는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69)

이 비판은 사회와 인간의 이원론에 기초하여 사회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교육을 통해 인간을 그 사회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체제 유지적이고 보수적인 교육론을 대상으로 한 비판이며, 오로지 대중교육을 통해서만 사회적 환경, 즉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개혁론들에 대한 비판이다. 요컨대, 이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변이나 인간의 불변적 자연적 본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유물론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환경과 인간, 즉 사회와 인간은 실천을 매개로 하여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사회란 인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활동의 산물이기에, 사회가 변화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방식이 변화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사회적 관계의 총체인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인간변화와 사회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인간역사의 현실적 진리이며, 교육자도 사회적 관계의 총체인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그들도 함께 변화하고 또 변화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조[직관]하는 유물론, 즉 감성을 실천적 활동으로 개념 파악하지 않는 유물론이 도달하는 정점은 각각의 개체들 및 시민 사회의 관조[혹은 직관]이다. 낡은 유물론의 입지점은 시민 사회이며, 새로운 유물론의 입지점은 인간적 사회 혹은 사회적 인류이다.70)

⁶⁹⁾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I』, *op. cit.*, pp.185-186.

해겔철학이 시민사회의 철학적 반영이듯이 포이엘바흐의 유물론 또한 시민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맑스는 파악한다. 직관적 유물론이 반영하는 추상적 인간관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들의 삶의 활동과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실천적인 활동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은 관조적 유물론이지난 비역사적 성격과 비실천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그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도 관조적 유물론의 비역사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포이엘바흐가 유물론자인 한 그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그가 역사를 고찰하는 한에는 결코 유물론자가 아니다. 그가 표방하는 유물론과 역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71)

맑스는 포이엘바흐의 추상적 인간관의 문제점이 인간을 감성적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감성적 활동으로 파악하지 못한데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맑스가 주목하는 실천적 유물론의 입지점은 결국 구체적인 인간 활동의 현실인 역사이다. 이 지점에서 그는 역사적 현실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혁명적 실천을 강조한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72)

이와 같은 맑스의 비판은 삶의 현실을 포이엘바흐처럼 관조하거나 직관하는데

⁷⁰⁾ *ibid.*, p.189.

⁷¹⁾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I』, *op. cit.*, pp.55-56.

⁷²⁾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I」, op. cit., p.189.

그침으로써 현실을 실천적으로 변화시키는 변혁적 활동과는 상관없는 관념적인 철학자들의 비실천적 대도를 겨냥한 것이다. 맑스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분리되지 않는 철학, 즉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해석하며 동시에 변혁할 수 있는 철학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은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때 비로소 해석에서 변혁에로의 이행이 완수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추상에서 현실로, 관조에서 실천으로 철학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2) 이론과 실천의 통일

대상적 진리가 인간의 사유에 들어오는가 않는가의 문제는-이론(Theorie)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문제이다. 실천(Praxis) 속에서 진리를, 즉 현실성과 힘, 자신의 사유의 현세성을 증명해야 한다. 사유-실천으로부터 고립된-의 현실성이나 비현실성에 관한 논쟁은 순전히 스콜라주의적 문제이다.73)

[테제 2]에서 맑스는 고전적 진리의 개념74)과는 달리 관념의 추상적 활동에서

⁷³⁾ ibid., p.185.

⁷⁴⁾ 나단 로텐스트라이히, 「청년 맑스의 철학」, 정승현 옮김 (서울: 미래사 1986), p.52. 여기에서 저자는 고전적으로 진리의 개념을 개념과 현실의 일치 또는 사물과 앎의 일치로 정의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의 본질은 진리는 현실 관찰의 산물이라거나 또는 현실과의 관계에서 얻어진다는 논리적 기초위에 서서 인간지식의 반사적 성격을 강조한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전적 정의는 그다지 실천적 활동의 측면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헤겔철학으로 고전적 정의를 분석한다. 헤겔사상에서 정의의 내용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의 자체는 굳건하고 확실했고 관념론적 입장에서는 관념의 힘이 강조된 나머지관념이나 개념을 주어진 실체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헤겔은 이성적인 것만이 현실적이고, 현실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성으로부터 창조된다고 한다는

멈추지 않고 실천의 실제 활동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맑스는 진리의 문제를 앎과 관련된 이론적 문제에서부터 현실의 문제, 즉 실천의 영역으로 옮겨버린다. 이 접근방식의 근본 개념은 실천이다. 이론의 문제는 먼저 [테제 1]75)에서 나타났고, 거기서 실천은 혁명적이며 비판적인 실천과 연결된다. 현실을 본질에 따라 규정하고, 이 본질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가를 발견하는데 비판의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현실과 그 본질을 비교하는 것이 단순한 이론적 비교는 아니다. 맑스에게 있어서 본질은 수동적이거나 정태적인 개체가 아닌 현실을 헤치고 나아가는 인간, 즉 현실속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인간에 의해 현실화 된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진리의 개념에 한정된 비판은 본질적으로 현실 속에서의 비판이다. 또한 본질과 현실의 일치를 의미하는 진리는 본질과 현실의 관계에 묶여있고, 현실 속에서 본질의 실현과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진리는 실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맑스에게 있어서 이론은 곧 실천의 이론이며 그것은 실천에 방향성과 타당성을 제공해 주고 힘을 부여하는 이론이다.

맑스는 혁명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화 작업을 하였다. 그에게 이론이란 당대의 잘못된 철학들을 비판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곧 비판화 작업이 그의 이론을 형성하는 출발점이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할 것은 맑스의실천과 비판적 방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것이다. 맑스의 비판적 방법은 철저하게 현실분석에 근거하지 않는 사변적 방법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사변적 방법의 현실적 토대를 비판하는 이데올로기비판으로 나아간다. 그 결과 이데올로기비판은 점차 현실인식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그의 유물론적 방법의 완성된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그의 유물론적 방법은 포이엘바흐의 유물론적 전도의 방법을 수용한다. 그러나 맑스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유물론적 방법을 실천적 변혁과 결합함으로써 실천적 유물론을 정립하게 된다.

것이다. 즉 고전적 진리의 개념과 헤겔의 진리 개념 모두 현실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 하는 추상적 활동에서 멈췄다는 것이다.

⁷⁵⁾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I」, op. cit., p.185.

맑스는 현실 안에서 이념을 발견하는 것을 이론적 과제로, 그리고 그 이념을 토대로 현실 안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실천적 과제로 하는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완성한다.

맑스에게 있어서 비판이란 구체적 현실을 그 이념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 현실에 입각해서 현존하는 모든 제도, 사상, 철학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을 가했고 이로 인해 은폐되어 있는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대안을 제시했다.

맑스에게 있어서 실천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맑스의 실천 개념은 비판적 실천이라는 이론적 활동에서 출발하여 물리적 활동, 사회적 활동, 특정한 형태의 역사적 삶의 활동, 과학적 실천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76) 이러한 실천 개념의 변화는 분절된 형태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유물론적인 비판적 방법의 명료화과정에 따라 점차 그 의미가 명료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한 가지 공통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천개념이 유물론적으로 파악된 실천이며 특히 변혁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은 변혁적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맑스는 주장한다. 그가 [테제 11]77)에서 이야기한 세계를 변혁시키는 활동으로서의 실천이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능동적 주체적 활동으로서 인간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해 방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인 것이다. 그것은 소외된 노동을 본래의 의미로

⁷⁶⁾ 안상헌, "초기맑스의 〈실천적 유물론〉의 형성과정: 맑스의 〈이론과 실천의 통일〉의 방법론적 성격을 중심으로" (철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0), pp.289-290. 이 논문에서는 맑스의 실천개념은 '비판적 실천'이라는 이론적 활동에서 출발하여 1)자연대상을 가공하는 생산 활동은 물론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키는 '물리적 활동', 2)이러한 인간 활동은 개인의 사적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연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활동', 3)역 사적인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특정한 형태의 역사적 삶의 활동', 4)구체적인 현실인식에 기초한 '과학적 실천'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⁷⁷⁾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I』, *op. cit.*, p.189.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되살리는 변혁적 행위이며, 또한 착취와 구속을 타파하는 사회적 행위인 것이다. 기존의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인간 해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천은 곧 변혁적 행위, 근본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론과 실천의 통일은 현실적인 모순의 발생을 인식하고 그 모순을 극복해가는 혁명적 실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맑스는 철학이 실제 현실과 그 모순을 반영해 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공허한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대중과 결합되어 현실의 억압적 제 구조들을 변혁하는 힘이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대중과 결합된 실천이란 혁명적 실천을 의미한다. 대중들은 자신의 직접적 조건, 물질적 필요, 속박의 사슬에 강제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근본적인 사슬에 묶여있는 계급이며 시민사회의계급이면서 시민사회의 성원이 아닌 계급이고 모든 계급을 해체하는 유일한 계급이다.78)

맑스는 사회해방의 주체와 그 조건을 프롤레타리아와 그 물질적 조건 속에서 찾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는 물질적이고 실천적인 혁명을 통해 사적 소유를 실천적으로 지양한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지양은 온갖 반인간적인 사회적 요소를 일소하고 이제 새로운 사회를 출현시킨다.79)

더 나아가 사적 소유에 대한 소외된 노동의 관계로부터, 사적 소유 등등으로 부터의, 노예제로부터의 사회의 해방은 노동자 해방이라는 정치적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지만 그러한 표현은 마치 노동자의 해방만이 중요한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해방 속에 보편적 인간해방이

⁷⁸⁾ T.I. 오이저만, 「맑스주의 철학성립사」, 윤지현 옮김(서울: 아침, 1988), pp.261-262. 참조.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존재의 장에서 저자는 현실의 역사적으로 한정된 특징을 가진 계급이 객관적 존재상태, 즉 사회적 생산 안에서 계급의 역할, 계급의 이해관계 등을 반영 한다고 말한다. 즉 피지배계급인 프롤레타리아는 사회적 존재의 상태와 계급적 역할에 의해서 혁명적 실천을 만들어 내는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⁷⁹⁾ 칼 맑스, 『철학의 빈곤』, 강민철·김진영 옮김, (서울: 아침 1995), p.172. "그러므로 피압박 계급의 해방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회의 창조를 내포하는 것이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다.80)

이와 같이 맑스는 계급해방 속에 보편적 인간해방이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맑스의 주장에 따르면 진정한 공산주의는 풍부한 인간의 제 욕구들을 억제하는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진정한 인간적 욕구로 고양시키고 발양시키는 적극적 체계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공산주의가 생산의 형태와 대상들을 인간의 본질적 능력의 새로운 표현으로, 그리고 인간본질의 새로운 풍요함으로 전환시켜 내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적 소유로부터 파생된 소외는 사적 소유의 완전한 지양인 공산주의를 통해서 가능하며, 공산주의로 향하는 변혁적 실천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이다. 혁명적 실천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통해 도출된다.

⁸⁰⁾ 칼 맑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op. cit., p.279.

5.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맑스의 초기저작에 나타난 실천철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철학의 출발점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찾았다. 그의 철학은 구체적인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현실 안에서 제기되는 실재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비판적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정립해 나 갔고, 비판을 통해 현존하는 모든 사상과 제도의 모순을 드러내었으며, 그 모순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맑스는 이론과 실천의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 현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이 자연과 역사의 주인으로서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체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맑스의 실천철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전개된다. 그에게 인간은 철학의 출발점이자 궁극이다. 맑스는 인간의 본질은 그 실재에 있어서 '유적 존재'이며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고 '실천적 주체'라고 주장한다. 먼저 그는 인간개념을 유물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자연의 선차성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인간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통일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는 사회속의 구체적 인간의 삶을 파악함으로써 인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규정한다. 이는 인간의 존재규정을 유적 존재에서 한 단계 높여낸 것이다. 맑스는 선행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인간 이해에서 벗어나 인간을 자연과 역사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존재로 본다. 즉 인간은 실천을 통해서 자연과 역사를 변화시켜나가는 존재로 이해한다.

맑스에 따르면, 자연과 인간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전제되고 있지만 이 두 존재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서로 결합된다. 유적 존재인 인간은 자연을 대상화하 는 자신의 고유한 활동을 한다. 노동은 인간의 고유한 본질이다. 하지만 현실적 인 간에게서는 소외가 일어난다.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생산행위로부터의 소외, 유(類)로부터의 소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가 그것이다. 이러한 소외는 사적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데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의 본질로서 노동을 얻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지양해야 한다. 맑스에 의하면, 사적 소유의 완전한 지양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가 지양된 사회이며 인간의 해방을 이름과 동시에 인간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재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는 임박한 미래의 필연적 형태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운동으로 이해된다.

맑스는 현실 안에서 이념을 발견하는 것을 이론적 과제로 보고 있으며, 그 이념을 토대로 현실 안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해가기 위한 실천적 과제로서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주장한다. 그에게 이론이란 현실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극복해가는 실천과 결부된 혁명의 이론이다. 그에게 이론과 실천은 구별되어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란 인간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모순의 발생에 대한 인식인 동시에,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으로 귀결됨을 뜻한다.

맑스철학은 맑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철저한 상황인식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그 모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맑스철학이 지금까지도 빛을 내고 있는 것은 당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모순을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상황은 어떠한가? 세계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이념의 물결 속에서 자본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IMF의 관리 하에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을 도입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민중들의 삶의 질은 더욱 더 나빠지고 있다. 2000년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인구의 50%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고용불안 속에서 지내며,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낮은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안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피폐한 민중들의 삶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81)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자본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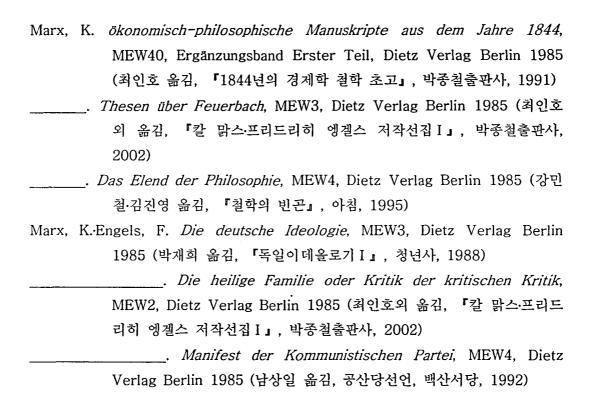
⁸¹⁾ 윤욱식,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많은 자유를 누리며 큰 자본을 형성해가지만, 노동자와 국민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맑스의 실천철학은 지나간 철학이 아니라 많은 의미들을 시사해 주고 있는, 살아있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상황이 그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과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제시했던 철학적 방법들은 시대가 다른 지금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현실 삶의 문제를 직시하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맑스의 사유의 방법들은 아직도 유효하다. 또한 사유를 통한 현실의 인식을 인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을 내세웠던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2003),} p.31.

참고문헌

1. 칼 맑스의 저작



2. 단행본

김수행 외.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의 쟁점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김재현. 『한국사회철학의 수용과 전개』. 서울: 동녘, 2002.

러셀, B. 『서양철학사(하)』. 최민홍 옮김. 서울: 집문당, 2000.

로텐스트라이히, N. 「청년맑스의 철학」. 정승현 옮김. 서울: 미래사, 1986.

맥렐런, D. 『청년혜겔 운동』. 홍윤기 옮김. 서울: 학민사, 1988.

안현수. 『인간적 유물론』. 서울: 서광사. 1991.

오이저만, T.I. 『맑스주의 철학성립사』. 윤지현 옮김. 서울: 아침. 1989.

정문길. 『소외론 연구』.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5.

3. 학위논문

- 박영욱, "맑스의 실천개념과 유물론: 초기저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9.
- 안상헌, "초기마르크스의 <실천적 유물론>의 형성과정: 마르크스의 <이론과 실천 의 통일>의 방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0.
- 윤욱식,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3.
- 이심우, "마르크스에 있어서 인간개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2.
- 이승원, "초기맑스에서의 노동과 소외."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1991.
- 이재후, "마르크스 초기 휴머니즘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1987.

- 천선아, "K. 맑스 초기저작에 나타난 철학의 근본문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1992.
- 허재훈, "마르크스에 있어서 노동개념의 형성과정."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2.
- 황성혜, "마르크스의 실천하는 인간의 문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0.